

燕巖 朴趾源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 양상

趙志衡*

- | | |
|-----------------------------|---------------------|
| I. 緒論 | IV. 연암 天主敎觀의 계승과 확장 |
| II. 熱河使行과 서학-천주교 인식 | V. 結論 |
| III. 沔川郡守 시절 천주교도에 대한 대응 방식 | |

• 국문초록

본고는 燕巖 朴趾源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그의 손자 臚齋 朴珪壽에게 계승·확장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연암이 지닌 천주교 인식과 대응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18세기 노론 인사들의 서학-서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을 살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암은 노론 핵심인 반남박씨 가문 출신으로 北學派를 대표하는 문인이었다. 북학과 문인들은 일찍부터 서양의 과학기술과 자연과학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燕行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문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다. 하지만 북학과 문인들은 종교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북학과 문인들과는 달리, 연암은 천주교에 대해서 허황된 학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연암은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천주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친서학-반서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양상은 沔川郡守 재임 시기의 행적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기 연암에게 천주교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끌어내어 비루한 습성들을 지니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천주교에 대한 대응 방식에

*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강사

있어서는, 천주교도들을 붙잡아 형벌을 가하고 배교를 강요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대신에 수령이 지극한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어 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연암은 이러한 방식을 직접 실행에 옮겨, 천주교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배교시키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은 가문 내 후손들에게 계승·확장되었으며, 연암의 손자였던 박규수가 남긴 「關衛新編評語」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규수는 몇 차례 진행된 국가적인 천주교 박해가 실효성이 없었음을 강변하는 한편, 천주교의 확산을 막고 천주교도들을 회유하기 위해 천주교 관련 서적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연구하여 그 모순점을 비판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1866년 병인박해 당시 평안도관찰사로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주력하며 천주교도들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았다. 이러한 천주교에 대한 대응 방식은 조부 연암이 보여준 모습과 상호 참조가 된다.

주제어 : 朴趾源, 熱河使行, 沔川郡守, 西學, 天主教, 朴珪壽, 關衛新編評語

I. 緒論

본고는 燕巖 朴趾源(1737~1805)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면모를 살피고 이러한 연암의 인식이 후대로 계승 확장되는 양상을 탐색하여 18~19세기 반서학적 흐름에서 연암의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18세기 이래 학문적으로 서학¹⁾을 수용하고 나아가 종교적 층차까지 미루어간 중심 세력은 星湖 李瀼을 정점으로 하는 近畿 南人 인사들이었다. 근기 남인 계열 인사들 내부에서는 서학-서교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를 두고 이른바 성호좌파와 성호우파로 분화되기에 이르며, 李承薰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1784년 이후 이들 사이의 논쟁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다. 한편 성호우파의 반서학적 입장은 損齋 南漢朝를 매개로 영남지역으로도 확산되는데, 이로 인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嶺南理學派라 일컬어지는 경북 지역의 여러 문인들에서도 반서학 저술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게 된다.²⁾ 이처럼 18세기에 서학을 수용하거나 또 배척한 중심에는 지역적으로 근기지역이든 영남지역이든 남인 계열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18세기 정치 구도 속에서 남인들과 더불어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少論-老論 인사들의 서학-서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일부 몇몇의 인사들, 예컨대 洪大容³⁾·黃胤錫·徐浩修⁴⁾ 등에 주목한 기왕의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본고에서 말하는 西學이란 주로 서양의 과학 지식을 의미한다. 西敎는 천주교의 교리를 비롯한 종교적 층차의 지식을 의미한다. 다만 『天學初函』의 경우와 같이 『天主實義』 등의 천주교 관련 서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西學으로 호칭한다.

2) 조지형, 「損齋 南漢朝의 順菴과 星湖 저술에 대한 辨疑」, 『교회사학』 1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조지형, 「安鼎福의 〈天學問答〉에 대한 비평과 反西學的 인식의 확산」,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3) 김선형, 「서학을 만난 조선 유학의 인간 이해-홍대용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8, 동양철학연구회, 2011, 49~60면.

4) 안대옥, 「18세기 正祖期 朝鮮 西學 受容의 繫譜」, 『동양철학연구』 71, 동양철학연구회, 2012, 72~85면.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연암 박지원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박지원은 노론 핵심인 반남박씨 가문 출신으로, 홍대용과 더불어 北學派를 대표하는 문인이다. 그는 일찍부터 북학과 문인들과 함께 서양 과학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경을 왕래하는 동료들로부터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전해 들었다. 특히 그는 1780년 熱河 사행 중에 직접 북경의 南天主堂을 방문하고 그 안에 있던 성화를 감상하여 『熱河日記』에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후 연암은 蔭職으로 관직에 올라, 安義縣監을 거쳐 1797년에는 沔川郡守로 3년여간 재임하였다. 연암은 충청도 內浦 지역의 한복판이었던 면천군에 부임하여 천주교도의 처리 문제를 두고 관찰사와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편지들이 당시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특별히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대응 방식은 동시대 주변의 수령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연암이 지니고 있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은 가문의 후손들에게도 계승되고 있는데, 그의 손자였던 璣齋 朴珪壽(1807~1876)가 지은 「關衛新編評語」에 이러한 면모가 엿보인다.

이처럼 연암 박지원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 양상을 살피는 것은, 18세기 후반 노론 계열 문인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1801년 신유박해 직전에 내포 지역에서의 천주교도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룬 기록은 관련 지역의 천주교사를 미시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연암이 지니고 있던 천주교에 대한 대응 방식의 일단이 19세기 개화사상가의 핵심 인물인 박규수에게까지 계승 확장되는 것은, 18~19세기를 관통하는 반서학적 인식의 흐름을 살피는 데도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Ⅱ. 熱河使行과 서학-천주교 인식

일반적으로 18세기 근기 남인들은 1626년 李之藻가 편찬한 최초의 서학 관련 총서 『天學初函』⁵⁾을 중심으로 독서를 진행하며 서학-서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

5) 『天學初函』은 理編과 器編으로 나누어져 있다. 세부 목록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理編總目: ①艾

면 18세기 소론-노론 계열의 인사들은 서학-서교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남인 계열 인사들에 비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에는 소론-노론 계열 인사들 사이에서도 경화사족을 중심으로 實事求是의 유가적 경세론의 입장에서 曆學·算學 분야의 서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론계 인물인 黃胤錫과 소론계 인물인 徐命膺·徐浩修 부자⁶⁾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서학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종교적 층차의 서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배척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노론 계열 안에서 서학에 대해 관심을 지녔던 또 다른 문인 그룹이 있는데, 바로 北學派이다. 주지하듯이 북학파는 청나라 문명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배우자고 주창한 일련의 학자 그룹으로서 그 대표적인 인물은 홍대용·박지원·박제가·이덕무·유득공 등이다. 이들은 청나라의 발달된 학술·문물·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물질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자연과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더욱이 북학과 인사들은 燕行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문적 논의를 한층 진전시켜 나갔는데, 특히 연행 중에는 천주교 성당을 방문하는 한편,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 선교사들과도 筆談을 나누는 등의 행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기실 이 같은 18세기 조선 사신들의 천주교당 방문은 남인-노론을 막론하고 사행 기간 중 일종의 의례적인 탐방 코스였다.⁷⁾ 예컨대 홍대용은 35세가 되던 1766년 연행 기간 중에 남천주당을 세 차례나 방문하고 동천주당도 한 차례 방문하여, 선교사로 머물고 있던 독일인 할레르슈타인(Augustinus von Hallerstein, 劉松齡), 고가이슬(Antoine Gogeisl, 鮑

儒略, 『西學凡』(1623) 唐景教碑附, ②利瑪竇, 『畸人十篇』(1608), ③利瑪竇, 『交友論』(1595), ④利瑪竇, 『二十五言』(1599), ⑤利瑪竇, 『天主實義』(1603), ⑥利瑪竇, 『辯學遺牘』(1609), ⑦龐迪我, 『七克』(1604), ⑧畢方濟, 『靈言蠡勺』(1624), ⑨艾儒畧, 『職方外紀』(1623). 器編總目: ①熊三拔, 『泰西水法』(1612), ②李之藻, 『渾蓋通憲圖說』(1607), ③利瑪竇, 『幾何原本』(1607), ④熊三拔, 『表度說』(1614), ⑤陽瑪諾, 『天問略』(1615), ⑥熊三拔, 『簡平儀說』(1611), ⑦李之藻, 『同文算指』(1614), ⑧利瑪竇, 『圜容較義』(1614年), ⑨利瑪竇, 『測量法義』(1617), ⑩徐光啓, 『測量異同』, ⑪徐光啓, 『勾股義』.

6) 조창목, 「鶴山 徐浩修의 『熱河紀遊』-18세기 西學史의 수준과 지향」, 『동방학지』 135,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173~179면.

7)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한국한문학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450~451면.

友管)과 필담을 나누면서 渾天儀를 비롯한 천문학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⁸⁾ 또한 천주당에서 파이프오르간[風琴]을 직접 연주하기도 하고 성화 등을 구경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두 선교사의 안내로 觀象臺를 견학하며 망원경을 통해 태양의 모습을 관찰하는 등 천문 지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⁹⁾ 북학파의 또 다른 일원인 박제가와 이덕무는 1778년 북경에 사신으로 함께 가서 남천주당을 방문하여 성당 구조를 살피고 성화를 감상하며 성당에 설치된 악기들을 둘러보았다.¹⁰⁾

북학파 인사들은 긴밀하게 교류하고 정례적인 모임을 이어가면서 서로가 경험한 새로운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다. 특히 이들에게 연행을 통해 체험하고 목도한 청나라의 여러 문물 제도 등은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며, 천주당의 관람과 서양 선교사들과의 만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은 선교사들이 지닌 뛰어난 서양의 과학기술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종교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기실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의 사신단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선물을 주는 등의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조선으로 천주교를 전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의 사신단은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신들의 학문적 관심사에만 집중할 뿐, 대체로 종교로서 천주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¹¹⁾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행 사신으로 청나라를 둘러본 홍대용을 비롯한 북학파 문인들 역시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연암은 북학파 문인들 중에서는 가장 늦은 1780년 44살의 나이에 청나라 乾隆帝의 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한 사행단의 일원으로 청나라에 갔다. 연암은 동료 문인들로부터 청나라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익히 들어왔던 터라, 연행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다. 연암은 북경에 도착하여 직접 남천주당을 찾아 성당 안에 그려진 성화들을 감상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熱河日記』 「黃圖紀略」에 <天主堂>과 <洋畫>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8)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홍대용의 문집인 『湛軒書』 외집 권7 「劉鮑問答」에서 확인할 수 있다. 洪大容, 『劉鮑問答』, 『湛軒書』, 한국문집총간 248, 247~249면.

9)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홍대용의 『을병연행록』·「燕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덕무의 문집인 『靑莊館全書』 권67, 「入燕記 下」, 正祖 2年 6月 14日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德懋, 「入燕記 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9, 229~230면.

11) 1784년 1월 연행 사신으로 갔던 李魯春이 저술한 『북연기행』에는 이 같은 이유로 인하여 “서양 선교사들이 앞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熱河로부터 북경으로 돌아와 즉시 宣武門 안 천주당을 찾았다. 동쪽으로 바라보니 지붕 머리가 종처럼 생겨 여염 위로 우뚝 솟아 보이는 것이 곧 천주당이었다. 성내 사방에 모두 천주당이 하나씩 있는데 이곳은 서편 천주당¹²⁾이다. 천주라는 말은 天皇氏니 盤古氏니 하는 말과 같다. 이 사람들은 曆書를 잘 꾸미며 자기 나라의 제도로써 집을 지어 거처한다. 그들의 학설은 浮華함과 거짓을 버리고 성실을 귀하게 여겨 하느님을 밝게 섬기는 것으로써 으뜸을 삼으며, 충효와 자애로써 의무를 삼고, 허물을 고치고 선을 닦는 것으로써 入門을 삼으며, 사람이 죽고 사는 큰일에 준비를 갖추어 걱정을 없애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저들로서는 근본되는 학문의 이치를 찾아내었다고 자칭하고 있으나 뜻한 것이 너무 고원하고 이론이 교묘한 데로 쏠리어 도리어 하늘을 빙자하여 사람을 속이는 죄를 범하여 제 자신이 저절로 의리를 배반하고 倫常을 해치는 구령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¹³⁾

연암은 청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북학과 동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특히 홍대용은 연암에게 서양 선교사들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천주당, 풍금, 성화에 대해서도 신기함을 거론하며 꼭 둘러보아야 할 곳으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였다. 이 때문인지 연암은 열하에서 북경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천주당을 찾아가고, 이어 자신이 지닌 천주교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하지만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생각은 북학과 동료 문인들과는 다소 달랐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 우선 연암은 천주를 신 또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황씨·반고씨 같은 중국 상고시대의 제왕 정도로 인식한다. 그는 북학파의 일원답게 서양 선교사들이 역법에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층차로 나아가서는 서양 선교사들의 학문적 태도나 심성 수양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12) 당시 북경에는 王府井의 東堂, 西什庫의 北堂, 宣武門의 南堂, 西直門의 西堂, 즉 4개의 성당이 있었다. 이 중 선무문 안에 있는 남당은 외국 사신들의 숙소로 쓰이는 玉河館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조선 사신들의 주요 방문처가 되었다. 연암은 자신이 찾아가는 곳이 서천주당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무문 안쪽이라 했으니 남천주당이다.

13) 朴趾源, 『熱河日記』, 「黃圖紀略」, 〈天主堂〉, “既自熱河還入燕京, 卽尋天主堂, 宣武門內. 東面而望, 有屋頭圓如鐵鐘, 聳出閭閻者, 乃天主堂也. 城內四方, 皆有一堂, 此堂乃西天主也. 天主者, 猶言天皇氏·盤古氏之稱也. 但其人善治曆, 以其國之制, 造屋以居. 其術絕浮僞貴誠信, 昭事上帝爲宗地, 忠孝慈愛爲工務, 遷善改過爲入門, 生死大事有備無患爲究竟, 自謂窮原溯本之學, 然立志過高, 爲說偏巧, 不知返歸於矯天誣人之科, 而自陷于悖義傷倫之臼也.”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언사를 드러내는 듯하지만, 결론적으로 천주교의 학설은 ‘하늘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矯天誣人]’ ‘의리를 배반하고 윤상을 해치는[悖義傷倫]’ 것이라는 비판적인 생각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

‘耶蘇’라는 두 글자는 중국 서적에 보이지 않으니, 이는 아마 야소가 저 絕洋의 밖에서 태어났으므로 중국 선비들이 그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입니까? 아니면 비록 들어서 안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가 異端인 까닭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까? …… 大秦國에는 애초에 이른바 야소교란 것이 없었는데, 이마두가 비로소 天神에게 의탁하여 중국 사람들을 의혹시킨 것입니까? 또 輪回의 설을 독실히 믿어 천당과 지옥의 설을 만들었으면서도 佛氏를 비방하며 공격하기를 마치 원수처럼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¹⁴⁾

위 인용문은 『열하일기』의 또 다른 부분인 「鵠汀筆談」의 한 부분이다. 연암은 江蘇 출신 문인 王民皐와 천주교에 대한 필담을 나누는 도중에 자신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묻는다. 연암의 궁금증은 다분히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연암은 기본적으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지닌다. 예수가 태어난 지 1,700여 년이나 되었건만, 왜 중국 선비들이 지금껏 그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가? 그가 異端이기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되지 못한 것인가? 애초에 예수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예수교란 마테오리치가 만들어낸 것인가? 왜 천주교에서는 불교의 교리를 차용하였으면서도 불교를 비방하는가? 등등. 연암의 이 같은 천주교에 대한 비판적 물음은 18세기 후반 반서학적 저술을 남긴 공서파 인물인 安鼎福·李獻慶¹⁵⁾ 등의 인식과도 대동소이해 보인다.

기실 연암이 연행을 하고 있던 18세기 중후반은, 중국 천주교사에서 보면 禁教期에 해당한다. 청나라는 雍正帝 즉위 직후 1724년 천주교 금교령을 반포하였고, 이로부터

14) 朴趾源, 『熱河日記』, 「鵠汀筆談」, “所謂耶蘇二字, 不見於中國之書, 豈耶蘇出於絕洋之外, 中國之士未之或聞耶. 雖久已聞之, 以其異端而史不之書耶. …… 大秦國未始有所謂耶蘇之教, 而利瑪竇始託天神, 以惑中國耶. 篤信輪回, 爲天堂地獄之說, 而詆排佛氏, 攻擊如仇讐, 何耶.”

15) 李獻慶의 반서학 저술에 대해서는 조지형, 「18세기 西學 비판의 맥락과 艮翁 李獻慶의 〈天學問答〉」, 『교회사연구』 50, 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참조.

공식적으로 120년간의 박해를 겪는다. 이에 서양 선교사들의 중국 내 선교 활동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실에서 천문·건축·회화·자명종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20여 명의 선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카오[澳門]로 추방되었다. 중국 내 천주교도에게는 신앙을 버릴 것이 명해졌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청나라 지식인들 일부에서는 천주교를 배척하는 斥邪論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연암이 연행 기간 중에 청나라의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연암이 천주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녀서일까, 연암의 눈에 비친 천주당의 성화 역시 동양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그림일 뿐이었다.

①

지금 천주당 가운데 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 구름과 인물들은, 보통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헤아려 낼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또한 보통의 언어와 문자로는 형용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¹⁶⁾

②

지금 天主堂에 그려 붙인 붉은 옷을 입은 女像이 구름 바다 사이로 날아다니곤 하는데, 이것이 곧 그 귀신인 것 같다.¹⁷⁾

위 인용문 ①은 연암이 천주당을 찾아가서 그 안에 있는 성화들을 감상하고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이다. 연암에게 성화는 동양화의 필법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어서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자신의 언어 수준으로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롭고 이색적인 그림이었다. 여기에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을 섞어 표현하자면 일종의 해괴망측하고 아리송한 그림이기도 하였다. 인용문 ②는 연암이 북경 외곽 지역인 古北口 밖에서 도교의 여신을 모셔놓은 사당을 구경하고 쓴 소감이다. 연암은 붉은 옷차림의 여자 신선을 보고 천주당의 성모도를 떠올린다. 즉 연암에게 천주는 중국 상고시대의 제왕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예수는 실존 여부를 믿을 수 없는 존재

16) 朴趾源, 『熱河日記』, 「黃圖紀略」, 〈洋畫〉, “今天主堂中墻壁藻井之間, 所畫雲氣人物, 有非心智思慮所可測度, 亦非言語文字所可形容.”

17) 朴趾源, 『熱河日記』, 「口外異聞」, 〈順濟廟〉, “今天主堂所畫朱衣女像, 飛翻海雲間, 似爲其神也.”

였으며, 성모마리아는 여자 신선 수준 정도로 이해되었던 것이다.¹⁸⁾

기왕의 연구에서, 연암은 열하 사행을 통해 城制·兵站·교통·의술·歌樂·문예 등 청나라의 문물 제도와 地轉說 등 서양의 천문 역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암은 천주교에 대해서만 큼은 다소 허황된 학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연암은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관심을 보였지만 천주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던 친서학-반서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천주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점은 그가 속한 북학파의 다른 문인들과 차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¹⁹⁾ 오히려 연암의 서학-서교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당시 성호우파의 주장적인 안정복의 인식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연암이 이처럼 일찍부터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천주교 문제가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Ⅲ. 沔川郡守 시절 천주교도에 대한 대응 방식

연암은 열하 사행을 다녀온 뒤 50세의 늦은 나이에 蔭仕로 관직에 나아가, 1791년 경상도 安義縣監을 거쳐 1797년에는 충청도 沔川郡守로 부임하여 만 3년여 동안 관직 생활을 하게 된다. 연암은 면천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천주교도의 처리 문제로 크게 고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면천군은 조선시대 서산·해미·당진·홍주·덕산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던 內浦 지역의 중심부였다. 주지하듯이 내포 지역은 초기 한국천주교회의 중심지로서 신앙의 못자리 역할을 한 곳이다. 이곳은 이른바 ‘내포의

18) 한편 『熱河日記』 「蟲葉記」에는 연암이 마테오리치의 무덤을 둘러보고 쓴 〈利瑪竇塚〉이 있는데, 담담한 필치로 자신의 견문만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이는 연암이 지닌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

19) 연암의 천주교 인식과 관련하여, 김명호는 『열하일기』 「渡江錄」 「好哭場論」이 『천주실의』의 염세적 인생관을 비판하고 주자학에 기반을 둔 낙천적 인생관을 제시한 것이며, 『열하일기』 「山莊雜記」 중 〈象記〉는 천주가 만물의 창조자임을 논증하면서 천주를 匠人에 비유한 『천주실의』의 창조론을 비판한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김명호, 「『熱河日記』와 『天主實義』」, 『韓國漢文學研究』 48, 한국한문학회, 2011, 336~353면.

사도'라 불리던 李存昌이 가성직제도 하에서 신부가 되어 전교를 맡아 일찍부터 천주교 교세가 크게 일었다. 특히 1791년 珍山事件-辛亥迫害 이후에는 천주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 조선 정부에서는 충청도 지역에서 천주교 확산을 막기 위해 五家作統 등의 엄격한 금단과 강력한 처벌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연암이 면천군수로 부임하던 시기는 충청도 내포 지역에서 '丁巳迫害'로 지칭되는 1797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100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어 순교한 일련의 사건²⁰⁾이 전개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전개 국면에서 연암이 면천군수로 부임하게 된 데에는 당시 국왕 正祖의 의중과 특별한 기대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글이 주목된다.

이때에 서양의 천주교가 8도에 크게 번져 집집마다 물들어 실로 큰 우환거리였다. 아버지[연암]는 면천군수에 임명되자 여러 관아를 돌며 인사를 다니다가, 비변사 제조 南公轍을 찾았다. 남공은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에 면천군수에 임명되신 것은 임금님의 뜻입니다. 부임하시면 책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까닭을 물으니, 남공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부임해보니 고을의 병폐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다지 다스리기 어렵지 않았다. 다만 邪教가 크게 성행하여 물들지 않은 마을이 없었다. 사교를 믿는 것이 적발되면 監營과 兵營에서는 즉시 죄를 물어 다스렸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백성들은 절의를 지키는 것인 양 생각하여 죽을 때까지 不服했으며 설사 사형에 처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는 형벌만을 앞세워서 안 된다.”라고 하셨다.²¹⁾

위 인용문은 연암의 차남 朴宗采가 아버지의 신상·생활상·교우·업적·저술 등을 기록해 놓은 『過庭錄』의 한 부분으로, 연암의 면천군수 임명과 관련된 뒷이야기

20) 정사박해의 원인과 전개 과정 대해서는 방상근, 「18세기 말 내포 교회와 정사박해」, 『교회사학』 1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133~141면 참조.

21) 朴宗采, 『過庭錄』卷3, 時西洋耶蘇之學, 大行域中, 家染戶漬, 實有深憂. 先君之除是郡也, 歷辭籌司提學南公公轍, 南公從容言曰: “是除, 上意也. 此去, 擔負不小也.” 先君驚問其故, 南公沈吟曰: “往當自知之.” 及莅任也, 邑瘼民弊, 無甚難治, 惟邪教大熾, 殆無一里不染. 畧已現發, 自監兵營, 隨即推治, 則蚩蠢無識之民, 看作守義立節, 抵死不服, 雖殺之無悔也. 先君曰: “是不可但以刑威先之.”

와 면천군수 시절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위 기록에 의하면 연암이 면천군수로 부임하게 된 것은 국왕 정조의 의중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충청도 지역의 골칫거리인 천주교 확산 문제를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잘 다스릴 수 있는가’의 여부였다. 연암은 이전 안의현감 재임 시절 監司를 도와 獄事를 잘 처리한 공로가 있었으며, 지역의 현안 문제 및 재난 상황을 잘 해결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²²⁾ 정조는 연암의 이러한 능력을 높이 사서, 해당 고을의 천주교 문제를 잘 해결하라는 의중을 담고 한편으로는 연암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면천군수로 부임하기 전에 연암은 직접 정조를 배알하였는데, 이때 정조는 연암에게 “면천은 작은 고을이지만 이는 또한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니 모름지기 잘 다스리길 바란다.”²³⁾는 당부를 직접 하기도 하였다.

면천군수로 부임한 후 실제로 연암에게 문제가 된 것은 고을의 폐단이나 백성들의 민생고가 아니었고, 역시 천주교의 성행과 확산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당시 천주교도가 적발되면 감영과 병영에서는 즉시 죄를 물어 처벌을 감행하였고, 또 천주교 신자들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느라 죽음도 불사하는 등 官-民 사이에 강대강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다. 고을에서는 이들 천주교도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었고, 천주교도의 경우 투옥과 형벌을 당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필연 피폐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이웃간의 감시와 고발로 마을의 인심이 흉흉해지는 등 또 다른 사회적 차원의 문제까지 야기되는 상황이었다. 연암은 이러한 상황을 묵도하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나름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백성들에 대한 훈계와 타이름을 통해 스스로 천주교에 빠진 과오를 깨닫게 하여 자발적으로 천주교를 배교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기실 이는 정조가 연암에게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다.

22) 김동석, 「安義縣監 朴趾源이 보여준 북학의 실천과 治績」, 『열상고전연구』 57, 열상고전연구회, 2017, 73~88면.

23) 『承政院日記』 正祖 21年 潤6月 27日 乙丑 12번째 기사, “上曰, 沔雖小邑, 此亦難治, 須善爲之, 仍命先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암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1798년경 면천군 泛川面²⁴⁾에 살고 있던 천주교도 金必軍이라는 자가 집을 비우고 도망을 하였다가,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관아에 자수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책까지 제출하는 일이 있었다. 연암은 자발적으로 배교 의사를 밝힌 김필군에 대해 고을의 아전들과 상의하여 훈방조치 하고, 이 일을 巡營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兵營에서는 연암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병영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순영에 보고한 것과 또 다소 미온적인 처결에 크게 유감의 뜻을 드러내며 소속 장교들을 보내 다시 김필군을 붙잡아 하옥시키고 그의 여죄를 추궁하며 심문을 하였다. 즉 병영에서는 천주교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던 터라, 연암의 보고 행태와 훈방조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던 것이다.

이에 연암은 병영과 마찰을 빚게 되자, 당시 충청감사였던 李泰永에게 병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며 辭意를 표명하는 편지²⁵⁾를 보내었다.²⁶⁾ 연암의 입장에서 병영의 조치가 과도하고 월권인 부분도 있어 자신을 업신여긴 처사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연암은 특히 병영에서 보여준 천주교도에 대한 問罪와 처벌 일변도의 처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백성을 감화시켜 좋은 풍속을 만드는 방법이란 아무리 그 지극한 정성과 거짓 없음을 힘써 보여 준다 해도, 그들을 깊이 믿음으로 감동시키지 못할까 늘 걱정인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이와는 정반대로, 사납게 禁斷시킴으로써 공적을 세우고자 하여, 먼저 스스로 어리석은 백성에게 위신을 손상당한다면 그 사리와 체면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 지금 백성들이 천주교도가 되는 것을 금단하려고 하면서, 먼저 불성실을 내보인다면 될 법이나 한 일이겠습니까?²⁷⁾

24) 泛川面: 현 당진시 우강면이다.

25) 당시 연암이 〈병영에 올린 報牒〉과 〈순찰사에게 보낸 편지〉가 『燕巖集』 권2에 남아있다.

26) 연암의 천주교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석, 「면천군수 朴趾源의 활동과 체험」, 『연민학지』 25, 연민학회, 2016, 188~195면 참조.

27) 朴趾源, 「上巡使書」,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46~48면, “化民成俗之方, 雖勤示其至誠無僞, 常患孚感之未深. 今乃反是, 欲爲立迹於厲禁, 先自損威於愚民, 其於事面, 果何如哉. …… 今欲禁民之爲邪, 而先示不誠, 惡乎其可乎.”

[2]

오늘날 소위 邪敎을 금단하는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잡아 묶어다가 관청 뜰 아래 꿰리고 곤장 차꼬를 채우고 내려다보면서, “네가 왜 邪學을 했느냐?” 하면, 그자는 한마디로 가로막아 말하기를, “소인은 사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명색이 관장이 된 자가 이미 그 學이 어째서 邪가 되는지도 모르니, 추궁하는 것이 조리가 없어서 먼저 스스로 알쏭달쏭하게 말하게 되며, 그들이 대답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복종한 줄로 인정하고 억지로 다짐을 받을 뿐입니다. …… 그래서 혹은 강제로 굴복반기에 급하여 지레 笞刑을 가하고, 혹은 엄포를 놓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고 알아듣게 타이른다는 것이 방법상 잘못되었으며, 혹은 억박질러 耶蘇를 저주하고 天主를 배척하게 하여 그 배반을 시험하고 그 진위를 관찰합니다. …… 지금 그들을 죽여 없애고자 해도 그 무리가 실로 많으니, 이는 물건을 신지 못할 물 새는 배를 호수나 바다에 띄운 격이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²⁸⁾

먼저 연암은 당시 수령들이 천주교도를 붙잡아 죄를 묻고 형벌을 가하며 배교를 강요하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수령들이 천주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어거지로 추궁을 하고 심문을 하며 또 배교를 강요하면서 엄포를 놓고 억박지르며 형벌을 가하는 등의 위압적인 방법으로는 천주교도를 다스리기에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이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화를 모면하기 위해 배교를 하는 척만 할 뿐, 진심에서 우러나는 배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암은 심지어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 즉 천주교도를 모두 죽이는 방법을 쓰는 것도 불가함을 천명한다.

대신에 연암은 수령이 지극한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어 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성들에게 사납고 위압적인 말투가 아니라 다정다감하게 알아들을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하여 천주교의 문제점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암은 “崔必恭같이 미혹된 놈이라

28) 朴趾源, 「答巡使書」,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48~50면, “今之禁邪者, 縛致此等愚民而庭跪之, 直以桁楊而臨之曰: 爾胡爲邪學也. 彼以片言遮截曰: 小人曾莫之邪學也. 爲長吏者, 旣不識其學之所以爲邪, 則究詰無稽, 先自啞謎, 因其所對, 而姑認輸服, 強捧侑音. …… 或急於制服, 徑施拷擊, 或威剋匪道, 譬說乖方, 或逼令其咀盟耶蘇指斥天主, 以驗其畔倍, 以觀其誠僞. …… 今欲其誅絕, 而其徒寔繁, 此不載之漏船泛之湖海, 則亦末如之何耳.”

도 하루아침에 잘못을 느끼고 깨닫자 곧 적당한 벼슬자리로 보답해 주었고, 李存昌같이 흉악한 놈도 7년 동안 완강히 항거하고 있으나 아직도 斬刑을 내리지 않고 있다.”²⁹⁾라고 하면서, 천주교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을 상대로도 처벌이 아닌 회유의 방식을 써야 한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연암은 면천군수로 재임 당시에 이와 같은 방식을 직접 실행에 옮겨, 천주교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배교시키는 데 일정한 성과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면천은 사학에 물든 자가 많았으므로, 부군이 우려하여 듣는 대로 적발해서 官下人의 賤役에 붙들어 매고, 매양 공무가 파하면 한두 놈을 불러 놓고 반복하여 타이르니, 형벌을 쓰지 않고도 다 감복하여 깨달아 바른길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심지어 그중에는 후회하고 한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었다. 급기야 신유년(1801)에 큰 옥사가 일어났지만, 면천 경내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³⁰⁾

위 인용문은 박지원의 장남 朴宗侃이 부친의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연암이 충청감사에게 답한 편지 말미에 덧붙여 놓은 기록이다. 위 내용에서 실제로 연암이 천주교도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였는가 하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자신이 말한 대로 천주교에 빠진 백성들을 매일매일 한두 명씩 불러 반복하여 타이르며 설득하는 것이었다. 박종간은 이러한 부친의 노력으로 인해 1801년 신유박해 당시 면천군 경내에는 천주교도라는 죄목으로 붙잡혀 처형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며, 부친의 치적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연암은 국왕 정조가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

29) 朴趾源, 「上巡使書」,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48면, “故惑如必恭, 而一朝感悟, 輒酬當窠, 凶如存昌, 而七年頑拒, 尙斬顯戮.” 참고로 崔必恭은 본래 惠民署의 醫員으로 1790년 천주교에 입교했다가 1791년 신해박해 때 배교한 뒤 關西의 審藥으로 차송되었다. 그러나 다시 천주교를 믿다가 1799년 체포되었으며, 신유박해 때 처형되었다. 李存昌은 충청도 내포 일대에서 지도적 인물로 활동하다가 신해박해 때 체포되었으나 배교를 서약하고 풀려났으며, 그 뒤 전도 활동을 재개하다가 1795년 다시 체포되어 감영에 구금되었다. 1797년 正祖는 이존창이 개과천선하면 방면하도록 명하였고, 1799년 이존창은 충청감사 이태영에게 배교를 서약하고 석방되어, 軟禁 생활을 하면서 將校로 복무하던 중 신유박해 때 처형되었다.

30) 朴宗侃,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50면, “時河陽多染邪, 府君憫之, 隨聞摘發, 磨之官隸之役, 每衙罷, 招致一二輩, 反復開論, 不勞刑威, 而皆得感悟歸正, 至有悔恨垂涕者. 及辛酉大獄, 沔境晏然.”

며 면천군수에 임명하였는지 그 의중을 명확히 꿰뚫고 천주교 확산과 천주교도의 처리 문제에 신중을 기하여 대응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연암은 천주교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을까? 연암의 장남 박종간은 “부군이 沔川에 계실 적에 감사와 더불어 왕복한 편지에 사학을 성토하는 글이 있었다.”³¹⁾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연암이 충청감사에게 답하고 보낸 편지는 모두 3통으로 문집에 전하는데, 여기에 중간중간 천주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보인다.

[1]

아! 저 邪學의 무리들은 본래 거칠고 패악한 성질로서, 오래된 常道를 싫어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며, 방종을 즐기고 구속을 꺼린다.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야비한 것이 바로 저들의 장기요, 학문이나 의리와는 본래 배치되는 바라, 오늘날 이 사학을 존송하는 것은 그들의 천성이 서로 가깝기 때문이다.³²⁾

[2]

내가 또 듣자하니, 그 법은 삼강오륜을 무너뜨리고 名教를 돌아보지 않으며, 남녀가 섞여 앉고 위아래도 구별이 없으며, 삶을 가벼이 여기고 죽기를 즐거워하여 칼에 죽거나 刑에 죽어 들판에 시신이 버려지는 것을 천당에 갈 수 있는 첫째가는 因果로 삼는다. 또 한 사람이 열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큰 공으로 삼는다.³³⁾

[3]

내가 보기에, 지금 중국에 있는 天主堂의 서양 사람들은 비록 曆法에는 정통하지만 모두 요술쟁이이다. …… 邪學은 본시 천당에 올라간다는 설을 가지고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이고 꺾었다.³⁴⁾

31) 朴宗侃,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50면, “府君在沔陽時, 與監司往復有討邪文字.”

32) 朴趾源, 「答巡使書」,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49면, “噫, 彼邪學之類, 本以麤悖之性, 厭故常而好奇, 樂放肆而憚檢. 淫褻貪鄙, 卽其伎倆也, 學問義理, 素所背馳也, 則今日之尊尙是學, 以其性相近也.”

33) 朴趾源, 「答巡使書」,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49면, “吾且聞之, 其法敦敗倫綱, 不顧名教, 男女混處, 上下無別, 而輕生樂死, 以兵死刑戮, 暴骨原野, 爲第一因果, 且以一人教十人爲大功.”

위 인용문은 모두 연암이 관찰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로, 천주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부분이다. 연암은 천주교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갖가지 비루한 습성을 지닌 무리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두 천주교에 물들었기 때문인데, 천주교는 유학의 삼강오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녀간 장유간의 구별도 없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의 형벌도 무서워하지 않게 하고는 오직 천당에 가는 것만 또 주변 사람에게 전교하는 것만 힘쓰게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연암은 본인이 직접 체험한 중국의 서양 선교사들을 역법에는 뛰어나지만 요술쟁이[幻人] 같은 존재라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연암의 머릿속에 천주교는 천당지옥설을 바탕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 끌어내는 이단의 사상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연암이 수령으로서 이러한 천주교의 확산을 우려한 이유는 또 있다. 연암은 관찰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특별히 일본의 ‘시마바라[島原] 반란 사건’을 언급한다.³⁵⁾ 시마바라 반란 사건이란 1637년 일본 큐슈 시마바라에서 천주교도들이 중심이 되어 발생한 대규모 농민 반란 사건이다. 2년여에 걸친 이 사건 과정에서 도쿠가와 막부는 12만 명의 정규군을 동원하여 이 지역 반란군과 백성 약 4만 명을 몰살시켰다. 막부측도 백성들도 실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다. 연암은 이 시마바라 반란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천주교를 전파하자 일본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천주교에 빠져 죽음도 불사하며 이 같은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고 경계한다. 즉 연암은 천주교의 확산이 심화되면 조선에서도 언제든지 일본 시마바라의 사례처럼 백성들의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한 것이다.

결국 면천군수 연암에게 천주교에 대한 대처 방식은, 애초에는 국왕 정조의 의중을 따르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나, 직접 군수로 재임을 하면서 깨달은 천주교의

34) 朴趾源, 「答巡使書」,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50면, “吾以爲卽今中國所有天主堂, 西洋人雖精於曆法, 皆幻人也. …… 邪學本以昇天之說, 誑誘愚民.”

35) 사학의 이른바 ‘伎離施端’이란 네 글자는 사람의 이름인지 법호인지 모르겠으나, 대저 극히 요망하고 괴이한 것이다. 처음에 일본 시마바라島原에 살면서 耶穌의 학으로써 선교하였다. 이에 일본 민중들이 그 설을 한 번 듣고서 염세적인 생각에 휩쓸리어 제 몸뚱이 보기를 표류하는 뗏목이나 부러진 갈대 즐기처럼 여겨, 세상일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것이 즐거운 줄도 모르며, 칼에 죽거나 刑에 죽는 것을 도리어 자신의 영화로 여겼다.[邪學所謂伎離施端四字, 不知是人名術號, 而大抵極妖怪也. 初居日本之島原, 以耶穌之學倡教, 於是日本民衆一聽其說, 靡然心死, 視其形骸, 若浮查斷梗遺落世事, 不知有生之可樂, 兵死刑戮, 反爲身榮.]

문제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풍속 교화를 실현하고 향촌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대한 관건이 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면천 지역에서 3년 동안 재임하며 천주교도를 직접 대면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연암의 머릿속에는 ‘천주교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꺾어내어 비루한 습성들을 지니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IV. 연암 天主教觀의 계승과 확장

연암이 보여준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그와 교유하고 있던 주변 문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점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그의 가문 내에서는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식이 후손들에게도 직접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암의 두 아들인 박종간·박종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각각 부친의 면천군수 시절 천주교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해 그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글을 통해 부친을 칭송하고 있다. 따라서 부친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에 두 아들도 공감을 표하고, 부친의 뜻을 이어가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보다 분명한 단서는 박종채의 아들이자 연암의 손자였던 박규수가 남긴 『關衛新編評語』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박규수는 조부인 박지원의 北學을 계승하여 19세기 조선의 역사적 격변 한가운데에서 정치·경제·사상·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당대의 가장 개명한 지식인으로서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여 누구보다 깊이 고뇌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 인물³⁶⁾이었다. 특히 그는 서양에 대한 外交論과 미국·일본 등에 대한 開國論을 주장하여 당시 조선의 관료층 중에서 선구적으로 개방적인 대응론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박규수가 친구인 尹宗儀(1805~1886)의 『關衛新編』³⁷⁾에 대한 評語이자 跋文의 성격으로 작성한 글이 바로

36)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작과비평사, 2008, 3면.

37) 尹宗儀, 『關衛新編』,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영인 출간본 참조.

「벽위신편평어」인데, 이 글은 박규수의 서양과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측면을 집약적으로 잘 대변해주고 있기에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³⁸⁾

「벽위신편평어」에 드러나는 박규수의 천주교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天’·‘天主’ 용어 사용의 부당성에 대한 비판, ②西學中國源流說의 긍정과 東道에 대한 우월의식, ③天主降生說에 대한 비판, ④敎派 분열의 실상 고발, ⑤천주교의 침략성과 布敎 의도 대한 비판. 이 가운데 ④와 ⑤는 기독교의 교파 분열 상황과 서양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 천주교를 비판한 방식으로 18세기 이래로 척사론을 주창하였던 다른 문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었다.

우선 「벽위신편평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천주교의 학설과 교리가 지니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며 반천주교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조선보다 천주교가 먼저 전해진 주변 국가의 사례를 통해 조선의 천주교 확산을 경계하는 방식의 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연암의 대천주교 인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앞서 살펴본바 연암은 일본 시마바라 반란 사건의 사례를 들어 천주교 확산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데, 박규수는 말라카, 싱가포르, 중국의 사례를 들어 서양인들이 본격적인 침략에 앞서 자신들의 종교를 몰래 전파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상투적인 수법임을 역설하며 천주교의 포교 의도 및 침략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과 논법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 점은 이러한 천주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18세기 이래 조선의 척사론자들은 모두 유학은 ‘嘉禾’인데 비해 천주교는 ‘惡草’와 같은 존재로 여겨 대체로 뽑아 없애는 방식으로만 대응하고자 했다. 더욱이 연암과는 달리, 박규수의 시대에는 이미 여러 차례 조선 정부의 주도 아래 천주교에 대한 국가적인 수준의 박해가 진행된 이력이 있다. 따라서 19세기 천주교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衛正斥邪의 주장을 하는 학자·문인들도 대체로 ‘刑其人 火其書’로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더욱이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 세력에

38) 이에 대해서는 손형부, 「〈關衛新編 評語〉와 〈地勢儀銘并序〉에 나타난 朴珪壽의 西洋論」, 『歷史學報』 127, 역사학회, 1990; 조지형, 「〈關衛新編 評語〉를 통해 본 璣齋 朴珪壽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론」, 『누리과말씀』 29, 인천가톨릭대 복음화연구소, 2011 참조.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후로는 천주교와 서양 세력이 동일시되면서 천주교에 대한 한층 더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기도 하였다.³⁹⁾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박규수의 생각은 달랐다. 박규수는 억압과 처벌을 통한 천주교 대응 정책을 반대하였다. 그는 이전 시기 여러 차례의 박해가 있었지만 천주교 신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면서 그간 몇 차례 진행된 국가적인 박해가 실효성이 없었음을 강변하였다. 이러한 천주교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은 과거 조부 연암이 지녔던 생각과 일치한다. 18~19세기를 통틀어 ‘斥邪論’으로 통칭되는 많은 천주교 비판과 배격의 논설과 주장들이 나왔지만, 강력한 처형 방식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새로운 측면의 대응방식을 역설하고 실천한 사례는 연암과 환재의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

박규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正學인 유학의 도리를 밝힘으로써 邪說을 종식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 생각으로는 저 오랑캐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에게 일러 그들 나라의 이른바 道理書들을 모두 바치게 하면,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숨김없이 바칠 것임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저 오랑캐들 가운데 한문에 두루 통달한 자를 시켜 그것을 번역하게 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천하의 유학자들을 널리 불러 모아 각 지역마다 3~4인을 모아 -많을수록 좋다- 관청을 개설해서 논박하게 하되, 사나운 기색으로 욕하고 배척하게 하지 말고 담담한 어조로 논단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게 하며 한 부의 저서를 간행하여 천하의 공백하고 먼 곳까지 반포하여 파급되지 않는 곳이 없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저들의 사설과 淫辭가 철저히 드러나 숨길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 백성들은 저들의 맹랑함과 허황됨을 훤히 알아 그 근거할 바를 얻어 미혹되고 빠지지 않으면,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세력이 성해져도 교활한 오랑캐들의 음모와 계책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⁴⁰⁾

39) 박규수의 「벽위신편평어」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윤종익의 『벽위신편』의 초고를 완성한 것이 1848년이고 이후 1880년까지 계속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을 감안할 때, 박규수의 글은 병오박해 이후 병인박해 기간을 걸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0) 朴珪壽, 「關衛新編評語」 제12칙, “愚謂明諭彼夷之在奧者, 令悉獻其國所謂道理書者, 彼之大喜呈納, 無有隱秘, 必然之勢也. 彼夷多通漢文, 悉令譯之, 亦非難事. 於是, 博徵天下儒學, 必須每州府, 各三四人, 愈多尤好. 開館設局, 逐一辨駁, 勿費聲氣呵斥, 只須平白論斷, 令人易曉, 刊就一部巨書,

위 인용문에서 보듯, 천주교의 확산을 막고 천주교도들을 회유하기 위해 박규수는 천주교 관련 서적에 대한 연구를 통한 비판 방법을 제기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는 천주교 관련 서적의 수입-유통-소지 일체를 엄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박규수는 이러한 조선 정부의 조치가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교에 대해 더욱 무지하게 만들어 논리적인 비판조차 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에 박규수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전제에서 조선 정부의 조치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천주교 관련 서적의 수입과 번역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서양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교리를 담은 서적들을 바치게 한 후, 서양인들 가운데 한문에 통달한 자들을 선별하여 그들의 서적을 번역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당시 중국의 경우 서양인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영국 선교사 모리슨(R. Morrison) 등이 말라카에 英華書院을 세우고, 미국 선교사 브리지먼(E. C. Bridgman)이 싱가포르에 堅夏書院을 세워 중국인을 교사로 영입해서 한자와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편, 기독교 성경을 번역·간행하게 했던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⁴¹⁾ 이러한 사실은 「벽위신편평어」 제13칙에도 드러나 있다.⁴²⁾ 이후에 이렇게 번역된 천주교 관련 번역서들을 관청을 설치하고 천하의 뛰어난 유학자들을 불러 연구를 통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연구와 비판은 감정적으로 나오는 욕설에 가까운 험악한 언설이 아닌, 담담한 어조를 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설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이러한 언설을 모아서 저서를 완성하고 이를 간행하고 천하에 두루 보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천주교의 그릇되고 허황된 주장들을 훤히 알게 한다면, 천주교는 더이상 설 곳이 없게 되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頒之天下窮邊遐陬，無不播及，彼之邪說淫辭，徹底呈露，無所遁形，而吾民曉然知其孟浪荒誕，得有所据，而不至惑溺，則聲張勢盛，黠夷之陰謀詭計，無所施矣。”

41) 이병길 편저, 『중국의 개신교 첫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152~160면. 본고는 김명호, 앞의 2008 책, 286면에서 재인용.

42) 朴珪壽, 「關衛新編評語」 제13칙. 중국의 서적이 날로 해외의 싱가포르(新嘉之坡)와 말라카(麻六之埠)로 수출되어 이를 번역하고 교습하는 중국인과 서양인들이 수천 수만에 이른다.[中國載籍，日出海外新嘉之坡·麻六之埠，華夷之繙譯教習者，動輒千萬.]

결국 박규수는 유학의 우월성을 자신하는 가운데 천주교에 대한 감정적인 배척이나 탄압 정책 대신에 공개적인 연구·비판을 통한 설득과 회유를 해서 백성들을 교화해야 천주교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1866년 병인박해 당시에 박규수는 중앙의 요직에 있다가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는데, 백성들이 교화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邪學에 물들었다고 하며 천주교도를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행적을 보면 천주교에 대한 대응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치 행위로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천주교에 대한 대응 방식은 조부 연암이 면천군수 시절 보여준 모습과 좋은 상호 참조가 된다.

V. 結論

지금까지 본고는 연암 박지원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연암이 지녔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그의 손자 박규수에게 계승 확장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앞선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먼저 연암이 지닌 천주교 인식과 대응의 양상을 살피는 것은 그간 18세기 노론 계열 인사들의 서학-서교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두루 알려져 있듯이, 연암은 노론 핵심인 반남박씨 가문 출신으로 북학과를 대표하는 문인이었다. 연암을 비롯한 북학과 문인들은 일찍부터 서양의 과학기술과 자연과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그들은 燕行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문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갔던바, 특히 연행 중에는 천주교 성당을 방문하고 선교사들과도 필담을 나누는 등의 행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암을 비롯한 북학과 문인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지닌 뛰어난 서양의 과학기술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종교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다른 북학과 문인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연암은 천주교에 대해서만큼은 다소 허황된 학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연암은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관심을 보였지만 천주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던 친서학-반서교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연암이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니게 된 데에는, 당시

청나라에서 천주교 금교령을 내린 박해 시기였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면천군수 재임 시기의 행적이다. 면천군은 18세기 후반 천주교가 가장 성행하였던 충청도 내포 지역의 중심지였다. 연암은 국왕 정조의 의중과 기대를 받고 면천군수로 부임하여, 천주교 문제에 대하여 당시 주변 수령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연암은 천주교도들을 붙잡아 형벌을 가하고 배교를 강요하며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신에 연암은 수령이 지극한 정성과 진실된 마음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어 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연암은 면천군수로 재임 당시에 이와 같은 방식을 직접 실행에 옮겨, 천주교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고 배교시키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면천군수 시절 연암에게 ‘천주교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끌어내어 비루한 습성들을 지니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상’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연암이 천주교 확산에 대해 우려한 것은 일본의 ‘시마바라 반란 사건’처럼 조선의 경우도 언제든지 농민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암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은 가문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연암의 손자였던 환재 박규수가 남긴 「關衛新編語」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박규수가 보였던 천주교에 대한 대응 방식은 조부 연암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박규수는 「벽위신편평어」에서 여러 차례의 천주교 박해가 있었지만 천주교 신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면서 그간 몇 차례 진행된 국가적인 박해가 실효성이 없었음을 강변하였다. 나아가 천주교의 확산을 막고 천주교도들을 회유하기 위해 박규수는 천주교 관련 서적에 대한 연구를 통한 비판 방법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1866년 병인박해 당시 박규수는 중앙의 요직에 있다가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는데, 천주교도를 적극적으로 교화하며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천주교에 대한 대응 방식은 조부 연암이 면천군수 시절 보여준 모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9
- 洪大容, 『湛軒書』, 한국문집총간 248
- 尹宗儀, 『關衛新編』,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 李魯春, 『북연괴형』,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작과비평사, 2008
- 홍대용 저, 김태준·박성순 역,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홍대용의 북경 여행기 (을병연행록)』, 돌베개, 2001
- 박종채 저, 박희병 역,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 이병길 편저, 『중국의 개신교 첫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 김동석, 「면천군수 朴趾源의 활동과 체험」, 『연민학지』 25, 연민학회, 2016
- _____, 「安義縣監 朴趾源이 보여준 북학의 실천과 治績」, 『열상고전연구』 57, 열상고전연구회, 2017
- 김명호, 「『熱河日記』와 『天主實義』」, 『韓國漢文學研究』 48, 한국한문학회, 2011
- 김선희, 「서학을 만난 조선 유학의 인간 이해-홍대용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8, 동양철학연구회, 2011
- 방상근, 「18세기 말 내포 교회와 정사박해」, 『교회사학』 1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 손형부, 「<關衛新編 評語>와 <地勢儀銘并序>에 나타난 朴珪壽의 西洋論」, 『歷史學報』 127, 역사학회, 1990
- 신익철, 「18세기 연행사와 서양 선교사의 만남」, 『한국한문학회연구』 51, 한국한문학회, 2013
- 안대옥, 「18세기 正祖期 朝鮮 西學 受容의 繫譜」, 『동양철학연구』 71, 동양철학연구회, 2012
- 조지형, 「<關衛新編 評語>를 통해 본 職齋 朴珪壽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론」, 『누리와말씀』 29, 인천가톨릭대 복음화연구소, 2011
- _____, 「18세기 西學 비판의 맥락과 艮翁 李獻慶의 <天學問答>」, 『교회사연구』 50, 한국교회사연구소, 2017
- _____, 「損齋 南漢朝의 順菴과 星湖 저술에 대한 辨疑」, 『교회사학』 1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 _____, 「安鼎福의 <天學問答>에 대한 비평과 反西學的 인식의 확산」, 『국학연구』 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燕巖 朴趾源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 양상

조창록, 「鶴山 徐浩修의 『熱河紀遊』-18세기 西學史의 수준과 지향」, 『동방학지』 135,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6

Park Ji-Won's Perception of the Catholicism and Aspect of Correspondence

Cho, Ji-hyoung

This paper examined the perception of the Catholic and the aspect of correspondence of Park Ji-won. In addition, it has been looked into how Park Ji-won's perception and correspondence to Catholicism were inherited and extended to his grandson Park Kyu-su.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examining one aspect of the Catholic and Western learning perceptions that the Noron scholars had in the 18th century.

Park Ji-won was from a core family of Noron and a representative literary person of Northern Studies. The scholars of Northern studies were very interested in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ural science, and they advanced their academic discussions through history travels to Chinese. Park Ji-won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Catholic and thought it's an absurd theory. In other words, Park Ji-won was taking the position of 'pro-Western learning, anti-the Catholic' that was positive about Western science and technology, but negative about Catholicism,

During his tenure as a Myeoncheon governor, Catholicism to Park Ji-won was recognized as a very dangerous idea that enticed foolish people to have poor habits.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way of corresponding Catholicism, he raised the problems of a strong response to arrest and penalize Catholics, and instead insisted that Suryeong should be moved and taught the people with sincerity and trust. In fact, he put this in practice by himself and made good results.

Park Ji-won's perception of and correspondence to Catholicism were inherited by his grandson, Park Gyu-su. Park Gyu-su argued that the several Catholic persecutions at 『Byeokwuisinpyeongeo』 were ineffective, while he insisted that actively accepting and studying Catholic books and criticizing its inconsistency to prevent the spread of Catholicism. Also, at the time of the Byeongin Catholic Perceptions in 1866, he focused on educating the people as a Pyeongan-do governor and did not execute even a single Catholic. Such correspondence to Catholicism was similar to his grandfather, Park Ji-won.

燕巖 朴趾源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 양상

Key Words : Park Ji-won, Yeolha Sahaeng, Gouverneur of Myeoncheon, Western learning, Catholicism, Park Kyu-su, Byeokwuisinpyeongeo

